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효자제일교회 전도사:홍 순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개역, 시편 *51:1~4]*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네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처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네가 칼로 헷 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처를 빼앗아 네 처를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 사람 우리아의 처를 빼앗아 네 처를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 영영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네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네 처들을 가져 네 눈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네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훼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개역, 사무엘하 *12:7~15]*

지난 달 신문을 보다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난감하더라구요. 부산의 어느 전도사님이 목욕탕에 카메라를 들고 가서 몰래 찍다가 잡혔답니다. 집에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한번 찍은 게 아니고 여탕을 여러 번 찍었더랍니다. '그래 부산에 있는 전도사님이라...' 우리하고 같은 신학교에 다니는 전도사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누군지 자수해라' 하고 한참 동안 떠들었죠. 그런데 그 비디오 카메라가 교회 비품이더라구요. *26*살 먹은 전도사가 교회 비품을 들고 나가서 목욕탕을 몰래 찍다가 경찰서에 잡혀 들어간 거지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렇게 했으면 용서하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경찰서에 갔다가 며칠 있다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세워 놓겠습니까*?*

다윗은 이것보다 더 했습니다. 훨씬 더 심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고생은 좀 했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형편에 빠지게 되었고, 또 그가 어떻게 해서 용서를 받았으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훈을 받아야 할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읽어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8*절을 한번 보세요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처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네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나라를 네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라고 하는 이 말과 **'네 주인의 처들을 네 품에 두고'**라고 하는 것은 뜻이 같은 말입니다. 실제로 사울의 처를 다윗이 차지한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왜 성경에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는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표현을 세 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을 하게 되면 정복했다라는 의미에서 선왕의 후궁이나 첩들을 차지했던 그런 풍토에서 나온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왜 김치국부터 마시느냐*?*'는데 그 말을 듣던 사람이 "김치국이 어디 있느냐*?*" 하고 나오면 대화가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그 때의 김치국은 실제의 김치국이 아니고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으로 쓰는 것일 뿐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처들을 차지했다고 하더라...' 이것은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내용 중에는 아이들이 보면 좀 곤란한 '미성년자 관람불가'라고 딱지를 붙여야 할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일로 인해서 지은 죄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조

목조목 한번 따져 봅시다. 다윗이 지은 죄가 무엇 무엇이죠*?*

우리아의 남편을 죽인 것.

살인죄인데 직접 죽인 건 아니고 부하들을 시켜서 죽도록 만들어 버렸으니까 '살인교사'가 되겠지요. '살인'이나 '살인교사'나 마찬가지입니다. 큰 죄지요. 충신을 죽여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일 먼저는 아니죠*?* 그 전에*?...* 다윗이 별로 죄지은 게 아닌 모양이네요*?*

간음죄

남의 아내와 몰래 동침을 했습니다. 또 있습니까*?* 제일 먼저 지은 죄는 아마 '근무태만죄'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나와서 지금 암몬과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충신들이 전부 나와서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 때에 다윗이 왕으로서 낮잠을 한잠 자고 나와서는 왕궁 옥상을 어슬렁거리고 다녔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근무태만죄'가 아닐까요*?* 직접 나가서 싸우지는 않을 망정 일선에 나가 있는 부하들을 생각하면서 좀 자중하든지 아니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사 하고 기도를 하든지 해야 될 터인데 오후에 한숨 자고 일어나서 옥상을 어슬렁어슬렁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무엇이 눈에 보였어요*?* 웬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단 말이죠. 눈을 감아야 합니까*?* 계속 봐야 합니까*?*

감아야 합니다.

감아야 된다고요*?* 왜 그리 심한 말씀을 하십니까*?* 남자들은 절대로 눈을 안 감아요. 그런데 감기는 감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안 감고 그것을 몰래 봤습니다. 이것도 죄가 되나요*?* 조금 전에 그 얼빵한 전도사는 붙들렸는데,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동네 목욕탕들이 좀 부실했어요. 담장도 판자로 얽어져 있어서 어쩌다가 잘 찾아다니면 행운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 틈새가 벌어져 있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목욕탕 담에 기어올라 갔다가 물을 뒤집어 쓴 아이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몰래 숨어서 열심히 들여다 보면 분명히 죄입니다. 죄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몰카'라고 하는 거 있지요. 몰래 카메라로 찍었다고 해서 '몰카'라고 하던데 좌우간 그 전도사 모양으로 잡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일도 상당히 심각한 죄지요.

제가 초임으로 발령 받은 곳이 문경 산양이라는 시골인데 저녁에 나와서 강바람 쐰다고... 참 좋더라구요. 강바람 쐰다고 강을 따라 산책을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맞아 죽을 뻔 했더라구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시골에는 강에 남자들이 목욕하는 곳이 있고 여자들이 목욕을 하는 곳이 따로 정해져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강을 따라서 저녁에 산보를 간 거죠. *"*아*!* 시원하다*"* 하고 올라갔거든요. 다녀와서 어두운 데서 여자들 떠드는 소리가 나더라고 했더니 큰일날 뻔했다고 하대요. 그 동네의 남자들은 그 근처에는 절대로 안 가는데 외지에서 온 게 멋도 모르고 지나갔으니... 들켰으면 혼날 뻔했죠.

좌우간 다윗이 그렇게 유심히 들여다 보았다는 것은 요즘 말하는 몰래 카메라의 원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죄가 늘어나는 것이죠. 몰래 들여다 보다가 불렀습니다. 부른다고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왕이 오라고 하니까 가야겠지요. 왔으면 만나서 식사나 하고 헤어지지 왜 또 잡니까*?* 그래서 임신한 것이 더욱 큰 화를 부른 것입니다.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잔꾀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나름대로는 굉장히 머리를 썼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잘 안되는 거예요. 결국은 남편을 죽이는 수밖에 없다 해서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어 버렸죠. 사실은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죄를 지었는데도 용서가 됩니까*?* 왕이니까 용서가 됩니까*?*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진정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은 겁니다.

그 전임자였던 사울과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이 지은 죄는 다윗이 지은 죄에 비하면 가벼울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중한 죄를 짓지 않았다 싶어도 사울은 버림을 당했습니다. 정말 많은 죄를 짓고 심각한 죄를 지었다고 도덕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아야 했던 이 다윗은 그로 인해서 벌은 좀 받기는 받았지만 용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이 과정에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다윗이 이런 범죄를 지었을 때 나이가 얼마쯤 되었을까 하는 것이 참 궁금합니다. 저도 이 나이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많이 뒤졌는데 끝내 확인을 못했습니

다. 그런데 어느 분이 마흔아홉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던데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그쯤 되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여러분, 나이 오십이나 된 사람이 남의 여인 목욕하는 것을 요렇게 들여다 보고 있을까요? 한 오십쯤 되면 그런 일에 초월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위대한 사람의 반열에 들기 일보 직전에 이런 문제에 걸려서 도중하차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분들 나이가 대략 얼마나 됩디까? 이런 성추문에 의해서 그 동안 쌓아놓은 공적을 깡그리 무너뜨리고 인생의 패배자가 되거나 파묻혀 버린 사람들의 나이가 대략 얼마쯤 됩니까? 오십? 사십요?

이 문제에 관한한 나이는 별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나이에 주책스럽게? 나이와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남자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이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품고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신에 여자분들은 우리 남편이 나이는 저 만큼 들었지만 저 문제에 관한한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어떻게 신경을 써요? 붙들어 매어놔요? 조금 더 내려가서 얘기를 다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잘못을 한번 저지르면 인생이 깨끗이 끝납니다. 훌륭한 목사님이셨던 분들이 이런 일들로 인해서 평생에 쌓았던 일들을 깡그리 잃어버리고 도중하차한 예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기 남편이 이런 일을 했으면 용서를 하시겠습니까? 아마 잘 안 할걸요. 젊은 새댁들도 이를 악물고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하던데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용서받는 길이 있습니다. 부인에게는 도저히 용서를 못 받아도 하나님께 용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부인에게 용서받기가 하나님께 용서받기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군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부인에게 용서를 못 받고 자식에게 용서를 못 받아도 하나님께는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전도사님이 강단에 서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고 하는데도 있다고 하시는 분은 나중에 좀 봅시다. 어떤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못 받죠?

성령훼방죄.

성령훼방죄에 대하여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령훼방죄에 대하여 오해하시는 분들이 하도 많아서요. "내가 혹시 성령훼방죄를 지은 것이 아닐까?" 해서 두려운 분이 있습니까? 단연코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성령훼방죄를 짓지나 않았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분들은 평생에 그러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성령훼방죄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하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아무래도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저런 일을 하고 있다. 귀신의 왕이다'라고 모함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성령훼방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거부할 수 없는 명확한 증거가 주어졌음에도 고의로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그것이 '성령훼방죄' 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을 하게 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혹시나 내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하던데... 그런데 내가 그렇게 못 살았다. 이거 혹시 내가 성령훼방죄를 지은 것이 아닐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의로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 애를 한번 잡숴 보이소' 하고 대들지 않는 한 성령훼방죄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억지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죄가 성령훼방죄입니다. 혹시나 내가 성령훼방죄를 짓지나 않았나 하는 두려움이 있는 여러분은 결코 성령훼방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 빼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떠한 죄라도 하나님께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설령 부인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남편에게 용서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단이 와서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합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지적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9*

절에도 있고 *10*절에도 있는데 *9*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다윗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까*? 10*절을 보세요.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몰래 우리아의 아내를 훔쳐본 것이나 헷 사람 우리아를 죽인 것이나 간음한 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무엇부터 말합니까*?*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죄가 무엇입니까*?* 살인죄, 간음죄, 몰래 훔쳐본 죄, 이런 죄 이전에 더 큰 죄가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죄는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입니다.

자, 이제부터 다윗을 생각하면 우리아를 죽이고 '남의 아내를 빼앗아 왔다' 이거 생각하기 전에 뭐부터요*?*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도 괜찮다고요*?*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까*?* 다윗이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기 전에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만만하다고 아무 생각없이 야단치고 고함지르고 성내고 분풀이를 막 해대는 것 있죠*?* 무슨 죄인지 아십니까*?* 아동학대죄요*?* 아동학대죄 이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이를 그렇게 키우면 이 아이가 나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게 됩니다. 그 부모 때문에 이 아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리켜서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실 것 같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에 얼마나 조심스럽게 대해야 할지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들이라고 함부로, 내 기분 따라서 멋대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라는 사실입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제일 만만한 것이 아이들일 수도 있지만 흔히 부인일 수도 있죠. 그 부인을 향해서 바깥에서 쌓였던 억울함, 스트레스, 다 풀어버립니다. 주의 깊게 말하기보다는 함부로 말을 막 해 버립니다. 아내를 무시하는 죄요*?*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해석하지요*?*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고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내를 생각할 때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게 막 퍼부어 버리는 경우가 더러 있죠*?* 경우에 따라서 맺힌 한이 많은데 나이가 조금 들면, 옛날에는 기죽어 살았지만 나이가 좀 들면 살아납니다. 기가 많이 살아서 경우에 따라서는 남편 알기를 우습게 알고 막 퍼부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라고 하십니다. 이거 참 어렵습니다. 저는 부부관계, 가정이 원만하게 잘 가꾸어져 가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 참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제하고 아껴 살아야 한다라고 *1*년간 설교를 했답니다. 웬만하면 쫓겨나기 알맞은데 같은 주제로 *1*년 동안 설교를 했답니다. 그래도 안 쫓겨 난 것 보면 그 분이 대단한 분입니다. *1*년쯤 하고 나니까 교인들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표가 나더라는 겁니다. '너무 좋은 차를 살게 아니고 설교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조금 여진*[*못한*]* 차를 사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랜저를 살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살아가는 차원이 조금 다른 동네의 얘기입니다. *1*년쯤 그런 설교를 반복하니까 그제서야 겨우 그런 생각을 조금 하는 것 같더라 싶더니 나중에 보니까 외제차를 샀더라는 얘기입니다. 설교 한 두 번에 우리가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계속 반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가정이 먼저 완성이 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이 다 어렵습니다. 기초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집과 같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뼈저리게 느꼈던 것입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집안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지간히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밖에 나가면 한없는 호인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호인이라고 칭찬을 다 듣습니다. 집에만 들어오면, 가족에게만은 독재자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걸 많이 보고 자랐거든요. 정말 이상하다*?*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할 사람들은 자기 식구일텐데 왜 자기 식구들은 윽박지르고 말도 함부로 하면서,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말 잘 하는 걸까*?* 우리 집만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집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좀 바꿉시다. 밖에 나가서는 싸우든지 깨든지 어쩌든지 마음대로 하되 집에만 들어오면 자기 식구들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남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소중한 사람이 하나님 다음으로 아내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가 사랑 받을 짓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 받을 짓을 해서 사랑을 받으시는 줄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했으니,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도 흉내를 좀 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상대로? 아내를 상대로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이 되면 아내를 상대로 사랑하는 연습을 좀 하십시오. 그러면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참 이상한 게 집에 있을 때에는 화장도 잘 안 하고 몸빼바지 비슷한 거 아무렇게나 입고 있다가 나갈 때는 참 공을 많이 들이데요. 그것 좀 이상해요. 나갈 때에 누구한테 잘 보일려고? 아니 다른 사람의 체면은 중요하고 남편의 눈에 드는 것은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까? 남편을 잘 붙들어 두어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아내는 남편에게 성적매력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만 특히 아내들이 이 점에 더 주의해야 합니다.

다윗이 이런 죄를 짓고도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범죄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라는 사실을 즉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뒷 이야기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 범죄함으로 낳은 아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살려달라고 금식을 하고 밤낮으로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신하들이 이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감히 못합니다. 저렇게 밤낮으로 울부짖고 있는 왕에게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어떻게 감히 할 수가 있겠느냐? 했다가는 혹시 자살을 해 버릴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분위기를 보고 눈치를 챈 다윗이 아이가 죽었느냐고 묻습니다. "예, 죽었습니다." 그러자 툴툴 털고 일어나더니 "상 차려라 밥 먹자." 그리고 목욕을 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러 갔습니다.

신하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돼요. 아니?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는 울고불고 하더니 죽었다는 말 듣고 깨끗이 털고 일어나더니 밥 먹자는 거예요. 아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얘기지요. 다윗의 입장은 하나님께서 데려가겠다고 작심을 하셨으니까 그 뜻에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살아 있을 때에는 밤낮으로 울부짖으면 혹시 뜻을 돌이키실까 싶어서 그랬지만 하나님의 뜻이 확고해졌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식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라면 기꺼이 따르겠다라는 이 다윗의 자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십니다. 다윗의 울부짖는 그 기도를 안 들으셨는 것 같은데 그 후에 솔로몬이 태어나지요. 그 솔로몬의 별명이 여디디야 입니다. 이름이 좀 디디하다고 그랬죠? 여~디디야 이거든요. 여디디야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께 사랑하심을 입었더라'입니다.

솔로몬이 태어날 때 이 이름을 얻었는데 언제 사랑받을 짓을 했나요? 다윗의 그 행위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눈물어린 기도,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을 때에 거기에 순종하겠다라는 그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그 기도를 솔로몬을 통하여서 응답하셨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깨끗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 자세가 되면 하나님께 얼마든지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큰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기서부터 회복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집나간 탕자가 어떻게 눈이 뒤집혔는지 모르지만 재산 들고 나가서 참 잘 살았습니다. 신나게 즐겼습니다. 돈 다 떨어지고 친구가 다 떨어졌습니다. 돼지와 경쟁을 하면서 돼지의 먹이를 빼앗아 먹을려고 경쟁을 하다가 돼지한테도 치였습니다. 그것마저도 못 먹게 되었을 때에 그가 무엇을 생각해 내지요?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겠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생각난 것은 아버지 집에 있는 먹을 것이었습니다. 그가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 있는 먹을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얼마나 풍족한고...' 이 생각을 하는 그 순간, 그 때부터 바로 회복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때부터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골리앗하고 싸우던 것? 그 다음에는 무슨 장면이 떠오릅니까? 밧세바와...? 그 장면을 조금 다른 장면으로 대치시킵시다. 다윗을 생각하면 다윗이 행한 그 범죄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범죄에 빠진 다음에 회복되어 가는 과정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라 하면 '엄청난 범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고백을 하면서 거기서 빠져 나온 사람' 우리가 이걸 기억하는 게 유익합니다.

혹시 우리가 잠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식에게, 혹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분을 내고 화를 내고 또는 밖에 나가서 우리 이웃들에게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린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잘못을 나 혼자서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5월은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열심히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마는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스승의 날은 제게는 상당히 괴로웠던 날이기도 합니다. 스승의 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선생님이 좋아서, 감사해서 드리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스승의 날이 되면 저는 늘 기분이 안 좋습니다.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서 선물을 왜 들고 오느냐는 겁니다.

오전 내내 마음이 안 편했다가 애들을 다 돌려보내고 난 오후에는 학교에 있어야 합니다. 졸업한 아이들이 찾아오거든요. 졸업 후에 찾아오는 아이들은 정말 반갑습니다. 제일 심할 때는 학교 앞 분식집을 하나 빌려서 잔치를 하듯이 즐겼던 적도 있습니다마는 그 때는 선생님이 주머니를 다 털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즐거워요. 진정한 마음이 오고가지 않으면서 스승의 날, 어버이 날... 조심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그 다음에 자녀와 부모 사이에 진정한 사랑이 오고가는 5월이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잠시 반짝 할 수는 있지만 우리 가정에 아름다운 화목이 유지되기란 어려운 것입니다. 가족 간에 흔히 저지르는 작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고 책망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혹은 부모가 자식을, 경우에 따라서는 자식이 부모를 업신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그런 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역시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이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한마디로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시 유혹에 이끌려 하나님을 잊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잘못한 많은 일들도 사실은 하나님을 잠시 잊은 데서, 잠시 잊고 내 생각, 내 혈기가 앞서서 이런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 잘못을 절대로 저지르지 않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그럴 때에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인지는 그렇게 살아본 사람만이 압니다. 세상에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을 때에야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사건, 그건 기억할 만합니다.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열심히 들여다 보았다? 그건 좀 바꿉시다. 뭘로 바꾸지요? 그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깨끗이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무슨 죄를 용서받았죠?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마저도 용서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 죄는 아마 안 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한 죄마저도 하나님께 나아옴으로 깨끗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안심하고 부부끼리 싸우세요. 여기에 '아멘' 하시면 은혜를 잘못 받은 겁니다.